

- 안산지부는 1988년 11월에 '안산시화전산인협의회 (http://club.nate.com/asitcon)' 를 발족하였고,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한다. 안산지부를 총괄하고 있는 손희완 회장(우창정기(주) 관리부장)을 만나 안산시화전산인협의회(이하 협의회) 활동을 들어 보았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인들의 모임 안산시화 전산인협의회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협의회가 오랜 세월을 먹은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말하는 손희완 회장. 초기에는 컴퓨터=IBM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여서 전산담당자들의 모임은 IBM유저들로 결성되었다. 당시에는 안산지역 20여 개 사의 전산담당자들이 모임을 개최했는데, IBM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산담당자들의 모임이라는 이유로 회원사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의 IT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IT 관련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수요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넓어지고 강력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점차 컴퓨터 시스템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초기에 의도했던 IBM 컴퓨터사용자들의 전산인 모임이라는 목적에 벗어나 참석률이 저조해지기도 했다. 특히 IMF관리체제 시기에는 기업의 전산담당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협의회 분위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침체된 협의회를 단번에 바꾼 이가 바로 손희완 회장이다. 2004년 1월부터 안산·시화지부전산인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손 회장은 전산담당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





손희완 회장(우창정기 관리부장)

는 모임에서 탈피하여 IT관련한 학술정보, 정보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변신시켰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

면,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우애는 다져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협의회를 총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이 세미나이다.

대학졸업 후 신창정기(우창정기 모회사) 전산담당자로 입사하여 협의회외도 오래 인연을 맺어 온 손희완 회장은 협의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현재 80여 개 업체의 25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경에는 임원들의 수고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안산·시화지역에는 3,000여 사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중 협의회 가입가능성이 잠재된 기업은 약 200사 정도라고 한다.

협의회 임원 조직은 손희완 회장, 임정묵 부회장(제양전기 차장), 정성훈(광명전기 차장), 문형주 총무(신창전기 과장), 백승명 고문(스피드정보시스템 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정묵 부회장은 세미나 등 학술관련 부문에, 정성훈 부회장은 아우회나 등반대회 등을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한다.

지난해까지는 격월로 운영하던 세미나를 올해 6월부터는 매월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우회나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3회의 정기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회는 'DRM(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리) 시스템 및 웹기반 애플리케이션(리포팅) 개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파수닷컴과 대길소프트가 후원하여 진행됐다. 2회는 'KT비즈메카 솔루션(생산관리, SCM, 시큐어넷 보안) 및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KT서



부지사가 후원하여 실시됐다. 3회는 '하이티테크의 문서관리 및 그룹웨어 소프트웨어(JEUS) 및 BPM(BizMaster)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정기세미나는 후원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우회나 등반대회시 회원들을 위해 사용된다.

협의회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손 회장은 희로애락을 겪는다. 회장직을 맡고 나서 첫 번째 세미나 때 일이다. 후원사를 결정하고 세미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한 후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부탁했다. 세미나 며칠 전부터는 잔치를 벌이는 주인의 마음처럼 잡도 오지 않았고, 세미나 당일에는 시작시간이 다가오는 데도 회원들이 보이지 않아 속 타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몇 번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염려는 곧 기우가 되었지만,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한다. 또한 손 회장은 후원하는 업체가 세미나 실시 후 성과가 없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안산·시화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전산담당자들은 외부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혼자서 전산업무와 관리·총무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시간을 내서 외부교육 기관에서 수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력과 인프라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IT담당자로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손희완 회장은 우창정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관리부장이다. 그는 끝으로 중소기업 IT담당자들에게 "업무의 폭을 넓혀야 경영자로 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 Users

